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28주년 추모식
추 모 사

- 일시 : 2018년 5월 8일(화) 오전 11:30
- 장소 : 서울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광 복 회

“사람 인(人)자가 왜 서로 버티는 형상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서로 버티어야 산다.

개인과 개인이 버티고, 조직된 단체와 단체가 서로 버티고, 2천만이 서로 버티고 버티어야 우리 민족이 산다.”

이는 1919년 3·1독립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외에 미 서명 15인의 한 분으로서 광복 이후 한국민주당의 초대 당수이셨던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선생님께서

증양학교 교감 시절, 제자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위대한 삶” 이라고 호소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탄신 128주년의 뜻 깊은 날을 맞아 특별히 진한 향기와 감동을 주는 선생님 말씀 한마디를 음미해 봅니다.

광복 직후 혼란한 정국에서도 중국으로부터 환국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절대 봉대론(奉戴論)을 주장하신 선생님께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언론활동을 통한 실력양성을 주창하신 참 언론인이셨습니다.

동아일보 창립에 기여하셨고, 제3대 사장을 거쳐 고문과 주필을 역임하셨으며,

‘세계의 대세와 조선의 장래’ 라는 탁월한 식견의 논문을 동아일보에 연재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조선인이 세우는 민립대학기성회 활동과 우리 땅에서 나는 물자와 제품을 활용하자는 물산장려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셨으며,

농촌의 문맹자 구제를 위한 농촌 계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분도 바로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민족이 살길은 서로 의지하고 단합하는 것’ 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은,

일제강점기는 물론,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새겨들어야 할 금과옥조와도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분단 이후 첫 번째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용기를 내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남북정상이 만나는 순간의 감격과 감동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은 서로 의지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조국광복은 이루어냈지만, 남북으로 갈라져 대립하면서 65년간 분단의 모진 세월을 견뎌 왔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본래부터 하나였던 민족동질감을 회복하여 핵 없는 한반도에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교류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일찍이 민족의 단합을 호소하신 선생님이시어!

기적과도 같은 북미회담과 남북미회담도 연이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디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종전선언과 함께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조성되어 한민족이 세계와 더불어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음우하여 주시옵소서.

2018. 5. 8

광복회장 박 유 철